

미래를 살아갈 내 자녀의 교육,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다고 해서 두려움과 위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기존과 같은 방법만을 고수하며 살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는 계속 변화해나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개방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4차 산업혁명시대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가이드'에서 언급한 자녀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미한 정보에서 벗어나자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의 90%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중국 알리바바(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의 마윈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사고로는 자신만의 위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 수준의 내용에 솔깃하지 말고 부모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참고할만한 정보사이트

- 커리어넷의 4차 산업혁명 진로정보
: <http://www.career.go.kr>
- 워크넷의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 <http://www.work.go.kr>

전문가의 힘을 빌리자

부모보다 아이의 역량과 적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보다 더 정확하게 아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될 경우 자녀의 인생행로가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능성을 계발해주기 위해 부모 이외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 꿈트리(자유학기제 웹진) : <http://dreamtree.or.kr>

- [꿈트리 - 꿈이야기 - 명사인터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시간 이상, 영국과 이탈리아는 OECD 평균인 2시간 30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어린이들은 48분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부모와 지내는 시간, 특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주연(2016),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 삶의 질

- √ 식사시간이나 쇼핑, 빨래 널기, 청소 등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시간을 확보한다.
- √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 등에 관심을 갖고 함께 즐기며 유대감과 공감대를 만든다.
- √ 자녀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미래 이야기, 진로이야기로 이어간다.

함께 책을 읽으며 마음 열기

자녀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지시만 하기보다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하며 사람과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면 자녀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 √ 한 달에 한번은 자녀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에 간다.
- √ 모든 사람에게 좋은 권장도서보다는 내 자녀에게 맞는 책을 찾도록 도와준다.
- √ 함께 책을 고르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한다.
- √ 같이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계기로 삼는다.

(출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가이드」)



어떤 직업이 좋을지 고민이에요.

저는 6학년 학생 드림이(가칭)입니다. 중학교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현재 문학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막막하기도 하고 딱히 문학작가가 되면 무엇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어(언어), 글쓰기, 창작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외국인 포함)과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장래희망으로 외교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직업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다양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내 꿈,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드림님, 반가워요. 질문을 읽어보니 이미 여러가지 고민을 했나보네요. 드림님은 영어(언어), 글쓰기, 창작 등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요. 자신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네요. 이런 내용만 가지고 직업을 하나 선택해서 진로로 삼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로를 탐색하는 것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직업을 살펴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보고 실제로 그 직업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커리어넷에 있는 진로탐색을 위한 심리검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림님이 잘하는 것을 살린 직업들을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생각해본다면 외국인들과 대화를 잘한다면, 영어선생님이 되어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들어주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또 글쓰기와 창작에 관심이 있다면 영어와 연결해 번역가나 전문작가, 한글로 된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림님이 직업을 가질 때에는 지금처럼 한 가지 직업만으로 평생 살지는 않을 거예요. 영어로 좋은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쓴 후,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수첩을 하나 준비해 내 꿈,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적으세요. 그렇게 6학년 기간을 지내보세요. 방학을 이용해 체험하는 시간도 가지고 전문가를 만나서 직업 인터뷰도 해보세요. 올해 가을이나 겨울이 되었을 때 드림님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직업 찾기에 다가가 있을 거예요! 드림님의 흥미진진한 직업, 진로, 꿈찾기를 응원합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학생·학부모 진로상담 사례)

“모든 아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학교 안전”

제 5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함양의 일환으로 ‘제5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전 개요

- ▲ 공모전 제목 : 모든 아이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학교 안전
- ▲ 공모 기간 : 2018년 4월 2일 ~ 5월 25일
- ▲ 공모 주제 :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 출품
- ▲ 공모 부문 및 참가 자격

공모 부문	참가 자격	비고
포스터	유·초·중·고 학생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
웹툰	유·초·중·고 학생	개인 또는 3인 이내 단체(팀) 응모 가능
	학교안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수기	유·초·중·고 학생	1인 1작품만 응모 가능
	학교안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생제한 미적용

- ▲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www.ssifcontest.com/>)